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음 9월 12일) 제238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전라북도 농생명 우수기술공동설명회에 송하진 도지사가 아시아스마트농생명벨리 조성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생명분야 기술·성과물 '한자리에'

도, 도내 21개 연구기관 참여 '우수기술 공동성명회' 국내 농산물 가공·유용미생물 활용한 기술 등 소개 곡물 시리얼 등 도내 식품기업 제품 전시도 '눈길'

전북도가 농생명분야 우수기술을 관련 기업 등과 공유해 기술적 성과를 확산시키는 등 전국 최고의 농생명 연구기관 집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또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농생명·식품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전북을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벨리'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의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큰 관심을 끄는 등 정책적 공감대 형성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은 지난 8일 전라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생진원, 전북

대, 군산대 등 도내 농생명분야 21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전라북도 농생명 우수기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각 기관들이 개발한 우수 기술과 연구성과물을 한자리에 모아 도내 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생명분야 우수기술 진행상황, 유관기관 R&D 지원사업 등을 전파했다.
이날 발표된 농생명 우수기술은 국내 농산물(밀, 팥, 쌀가루 등)의 가공 및 상품화 기술과 함께 유용미생물, 발효유산균 등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화 기술 등을 농촌진흥청, 생진원, 도 농업기술원, 전북대 등이 차례로 소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제 농생명 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상품화에 성공한 도내 식품기업의 제품들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전시와 시식행사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디자인농부'는 생진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곡물 시리얼을 개발해 간편대용식 시장에 진출,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의 기술을 활용한 '꽃지않는 떡'을 선보인 '사임당푸드'도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도내 9개 기업 및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우수기술·지원사업 1:1 상담회도 열려 도내 기업들이 기술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정보, 최적의 지원사업 등을 매칭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또한, 이날 아시아스마트농생명벨리 조성의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공유를 위해 지난 9월 2일부터 23일까지

그립과 정책아이디어, 홍보아이디어, 슬로건&캘리그래피, 포스터, 유씨씨(UCC, 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직접 제작 콘텐츠) 등 6개 분야에 걸쳐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벌인 결과 전국에서 모두 63점이 응모해 최종 선정된 최우수작 6점 등 모두 22점 응모자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의 농생명 혁신역량을 심분 활용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전북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농생명·식품산업의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생명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해보니 우리 아이들도 농생명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농생명·식품산업 육성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내에 집적해 있는 41개 연구기관의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연계사업 등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올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 5곳 선정

전북도는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개 시·군 5곳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465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공동체회복 등을 목표로 매년 10조 원(재정 2, 기금 5, 공공 3)씩 5년 간 500곳에 50조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다.

전북도는 쇠퇴한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올해 11개 시·군, 18개 사업을 사전 발굴, 5곳 이상 선정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 지역은 ▲군산시 해신동(중심시가지형), ▲익산시 송학동(일반근린형, LH제안형),

익산시 인화동(일반근린형), ▲김제시 교동(일반근린형) 4곳이다.
군 지역으로 ▲완주군 상관면(우리동네살리기) 1곳 등, 총 5곳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465억 원을 포함해 총 777억 원을 단계별로 투입해 쇠퇴한 구도심의 기능 회복과 균형 있는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가 만든 '밤의 세계'

태풍으로 연기됐던 '전주문화재야행' 12일 한옥마을 경기전 일원서 개최

태풍으로 연기됐던 전주문화재야행이 오는 12일 다시 열린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오는 12일 한옥마을 경기전 일대에서 문화재를 보고 체험하며 전주의 아름다운 밤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2019 전주문화재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야행은 규모가 다소 축소됐지만 전주만의 역사·문화 콘텐트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재를 활용해 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야행은 12일 오후 6시 태조 이성계가 역사의 문을 열고 경기전 밖으로 나와 방문객을 맞이하는 퍼포먼스로 시작된다.
이어 경기전 광장에서 펼쳐지는 역사 퍼포먼스와 100년 전 놀이 체험을 재구성해 문화재 울타리 안에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제공

하는 '꽃박의 시리즈' 공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야행 놀이터', '왕의 행렬' 등은 추억의 놀이와 조선실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야행 당일 경기전은 밤 10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전북투어패스와 전주야행을 결합한 상품도 마련된다.
앞서 전주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과 전주대 HKK+연구단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와 공공서관한문·활·탄 프로그램은 지난달 21일 태풍 속에서도 정상 추진돼 새벽까지 한옥마을의 밤을 밝혔다.
2019년 전주문화재야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onjunigh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고창 갯벌, 세계유산 등재 '청신호'

IUCN 파견 전문가들 '긍정적' 반응... 특이지형 쉼터 '관심'

202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고창 갯벌에 대한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의 전문가 현지실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들이 긍정적인 평가 반응을 보임에 따라 고창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UCN에서 파견된 2명의 전문가가 지난달 30일부터 9일간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여부 결정을 위해 4곳의 갯벌현장에서 실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실사가 진행된 곳은 고창갯벌,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 4곳이다.
이번에 IUCN에서 파견된 현지실사 전문가들은 독일출신의 IUCN 자문위원 바스티안 베르츠키는 오전부터 현지실사를 진행하였고 인도출신 자연지리학 전문가인 소날리 고쉬는 오후 현지실사부터 함께 했다.

이들은 갯벌 생태계 위협요소인 해양쓰레기 및 어로활동 등을 집중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민 주도의 쓰레기 처리, 갯벌 휴식년제, 갯벌길 이용통로 지정 등 자체 보존·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들은 실사 내내 전체적인 준비상태에 만족감을 표시했고, 실사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특히, 갯벌 특이지형인 쉼터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현지실사는 서류심사, 토론회 심사 등 여러 전문가의 참여로 진행되는 전체 심사과정의 한 단계로,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은 이번 실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2020년 7월 중국에서 개최하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보고하게 되며, 이 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